

송성명(宋成明) 형제의 도호(陶湖, 광나루)

광나루 부근 한강을 광호(廣湖)라 부르는데 조선 후기 도호(陶湖)라는 이름이 생겼다. 도호의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지만, 1714년 『조선반도지도집성(朝鮮半島地圖集成)』에 잠실섬 가운데 잠실리가 보이고 그 위쪽에 신천리가 보이며 그 서북쪽에 율리(栗里)가 보인다. 대략 잠실대교 북단 서북쪽 기슭일 것이다. 이를 보면 도연명이 살던 율리와 같은 이름의 마을이 있었기에 그 앞쪽 한강 지류를 도호, 곧 도연명의 강이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조귀명(東谿 趙龜命, 1693~1737)은 박광수(朴光秀, 1677~?)가 「도호별업기(陶湖別業記)」를 지었다고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글은 전하지 않는다.

도호(陶湖)가 조선 후기 부각된 것은 송성명(松石 宋成明, 1674~1740)과 조경명(歸樂 趙景命, 1674~1726)이 이곳에 나란히 살면서 호도 도호도 사용하였다. 같은 해 태어난 두 사람은 절친하였다. 송성명은 본관이 여산(礪山)이고 자가 성집(聖集) 혹은 군집(君集)이며 『국조명신언행록(國朝名臣言行錄)』을 편찬한 인물이다.

이 집안은 조선 후기 명화를 많이 배출하였다. 부친 송징은(約軒 宋徵殷, 1652~1720)은 형조와 병조의 참판을 지냈다. 송징은의 고조 때 마련한 밤나무 동산과 채마밭이 있는 전장이 동교(東郊)에 있었다. 그의 「동곽정사기(東郭精舍記)」를 보면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못에서 미나리를 뜯어 자족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집 뒤편에 향나무 한 그루가 있어 달밤을 거닐곤 하였다. 이 동곽정사에는 일휴당(逸休堂)이라는 건물이 있었다.

송징은(宋徵殷)은 “내가 동교에 우거하던 이듬해 동산 위에 세 칸의 집을 지었다. 좌우에 방을 두고 가운데 마루를 깔았으며 짙으로 지붕을 덮었고 흙담을 둘렀다. 거처하는 방을 일휴당(逸休堂)이라 편액하였다”라 하였다.

「일휴당기(逸休堂記)」를 보면 일휴당은 “덕을 쌓으면 마음이 편안하여 날로 아름다워지고 위선을 행하면 마음이 피곤하여 날로 졸렬해진다(作德心逸日休 作爲心勞日拙)”는 『주서(周書)』의 구절에서 따온 집으로, 쉼 살에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물러나 편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휴당팔영(逸休堂八詠)」을 지어 노래하였다.

逸休堂八詠(일휴당팔영) / 송징은(宋徵殷) 『약헌집(約軒集)』 권1

① 華嶽晴峰(화악청봉)	삼각산(華嶽山)의 맑은 봉우리
② 漢南粉堞(한남분첩)	남한산성의 하양 성가퀴
③ 峩嵯暮雪(아차모설)	아차산의 저녁 노을
④ 木覓夕烽(목觅석봉)	남산(木覓山)의 저녁 봉화
⑤ 箭郊牧馬(전교목마)	전교(前郊, 앞 들판) 목장의 말
⑥ 鍾巖行人(종암행인)	종암동의 지나다는 사람들
⑦ 前郊穫稻(전교확도)	전교(前郊, 앞 들판) 쌀 수확
⑧ 後溪觀漲(후계관창)	뒤 개울이 불어난 물

「동곽정사기(東郭精舍記)」에 나온 대로,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개울과 산을 골라 정자를 두어 유람을 즐기고 편히 휴식하기 위해서 별서를 두지만, 동교의 일휴당은 인근에 황량한 언덕과 분노 냄새가 풍기는 논밭만 있었다. 이 때문에 송징은(宋徵殷)은 1716년 형조와 병조의 참판을 지낸 후 벼슬에서 물러나 광나루에 따로 별서를 마련하였다. 자신의 삶을 돌아본 글에서 약관의 나이 때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지만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부득이 벼슬살이를 하였는데, 1716년 가을 드디어 광나루의 강가로 물러나 심신의 수양에 힘쓰겠노라 하였다.

송징은(宋徵殷)은 주자의 「운곡이십영(雲谷二十詠)」을 본떠 자신의 거처 12곳을 자랑하였다. 「效臨廡雲谷二十六詠」에 덕봉(德峰) 광진(廣津) 송단(松壇) 울원(栗園) 신천(新川) 공자원(公子園) 약천(藥泉) 미호(漢湖) 용연(龍淵) 함평(蛤坪) 남한(南漢)이 시제로 쓰였다.

송징은(宋徵殷)이 도연명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次陶淵明歸田園居」에 광나루 별서에서의 삶이 그려져 있다.

동곽정사기(次陶淵明歸田園居) / 송징은(宋徵殷) 『약헌집(約軒集)』 권10

少小不諧俗 雅志在碧山	소소불해속 아지재벽산	어려서부터 시속에 맞지 않아 우아한 뜻이 푸른 산에 있었지
中歲墮塵臼 汨汨幾十年	중세타진구 골골기십년	중년에 먼지 구멍이에 떨어져 몇십 년 세월을 골몰했었지
緬彼遐邇客 不啻若天淵	면피하둔객 불제약천연	멀리 숨어 산 객을 그리워하니 내 신세와는 천양지차였지
桑榆暮景迫 投絃始歸田	상유모경박 투불시귀전	<u>늘그막에 이르러서야</u> 벼슬 던지고 전원으로 돌아왔네
江干起茆屋 聊欲老此間	강간기묘옥 연옥노차간	강가에 초가집을 짓고 여기서 노년을 보내려 했네
桑麻繞屋後 松竹蔭堦前	상마요옥후 송죽음계전	뽕나무와 삼나무를 집 뒤에 심고 소나무와 대나무는 섬돌 앞에서 그늘 드리우네
蕭洒絕塵氛 特地饒風煙	소주절진분 특지요풍연	소쇄하게 속세 먼지 사라지니 바람과 안개가 특별히 많아지네
鷺拳明沙際 蜩鳴綠樹顛	노권명사제 조명녹수전	해오라기 백사장 너머에 웅크리고 푸른 나무 꼭대기에 매미가 울어대네
淸風有時至 愛此北窓閑	청풍유시지 애차북창한	맑은 바람 가끔 불어오니 이러한 한가함을 주는 북쪽 창을 사랑하네
端居澹無營 沈默自憮然	단거담무영 침묵자유연	맑고 단정하게 억지로 꾀하는 바 없이 입 다물고 사노라니 마음이 절로 시원해지네

송징은(宋徵殷)의 아들 송정명(止窩 宋正明, 1670~1718)과 송성명(松石 宋成明, 1674~1740) 형제는 나란히 이름을 날렸는데 송징은이 광나루로 물러나기 전에 이미 두 아들은 광나루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송정명은 자 자화(子和)이며, 경상도·충청도·전라도 관찰사를 두루 지냈다. 그런데 엄경수(嚴慶遂, 1672~1718)가 지은 「연강정사기(沿江亭榭記)」에는 송정명의 정자는 송씨정(宋氏亭)이라 하면서 그의 장인 김우항(金宇杭, 1649~1723)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 지은 집이라 하였다.

엄경수가 송씨정이라 한 것은 구체적인 이름이 없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다가 연지와(連枝窩)와 청우당(聽雨堂)이라는 건물이 들어섰다. 이들 형제와 친분이 깊었던 조태억(謙齋 趙泰億, 1675~1728)은 송정명의 죽음을 애도한 시「宋留守子和正明輓」에서 이 건물들을 언급하고 있다.

• 엄경수(嚴慶遂, 1672~1718)의 「연강정사기(沿江亭榭記)」는 서울 한강 양천(陽川)에서 출발하여 미호(漢湖, 미사리)까지 뱃길을 따라 한강 연안에 위치한 누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이다

宋留守子和正明輓(유수 송정명 만사) / 조태억(趙泰億) 『검재집(謹齋集)』

廣陵江上簇青巒 新起雙亭俯碧湍	광릉강상족청만 신기쌍정부벽단	광나루의 강가 푸른 산 빼곡한 곳에는 새로 지은 두 정자가 푸른 물결 굽어보네
好是弟兄棲息地 綵衣長奉二親歡	호시제형서식지 채의장봉이친환	형제가 숨어 살던 좋은 곳에 색동옷 입고 늘 양친을 기쁘게 모셨네
湖上遺蹤日杳然 舊居蕭瑟慘風烟	호상유종일묘연 구거소슬참풍연	강가에 남겨진 자취 나날이 아득한데 쓸쓸한 옛 집은 바람과 연기에 처량하다
連枝已作傷心地 聽雨那堪獨夜眠	연지이작상심지 청우나감독야면	연지와(連枝窩)는 벌써 가슴 아픈 땅이 되었는데 청우당(聽雨堂)에서 어찌 차마 홀로 잠을 자리오?

여기서 형제가 나란히 살던 곳이라 하고 연지와와 청우당을 언급하였다. 이 시의 주석에 따르면 연지와는 송정명의 집이고, 청우당은 송성명의 집이었다(連枝, 子和窩号. 聽雨, 聖集堂名)고 적었다. 형제가 나란히 집을 짓고 살면서 양친을 모셨던 것이다.

송정명이 거처를 '연지(連枝)'라 한 것은 한 뿌리에서 난 이어진 거지라는 뜻으로 동포형제(동포형제)의 뜻을 취한 것으로 형제의 우애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이름이다. 또 '청우(聽雨)'는 맑은 빗소리를 듣는다는 운치있는 삶을 표방한 것이다.

조태억(趙泰億)은 송정명(宋正明)이 세상을 떠난 후 초연정(超然亭)을 지나면서 지은 시 「過廣津宋子和超然亭, 志哀」에서 "강물 하나 사이에 둔 동서의 언덕에, 초연정이 광연정(曠然亭)을 마주한다네(一水東西岸 超然對曠然)"라고 한 바 있다. 조태억의 광연정이 학여울에 있었기에 이런 글을 쓴 것이데, 송정명이 초연정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성명(宋成明)도 청우당(聽雨堂) 외에 해취정(奚取亭)이라는 정자를 마련하였다. 송성명의 벗 조유수(后溪 趙裕壽, 1663~1741)는 해취정을 「陶湖奚取亭六面閣歌」시로 노래하였다.

陶湖奚取亭六面閣歌(도호 해취정 육면가의 노래) / 조유수(趙裕壽) 『후계집(后溪集)』 권6

水奚取於雪嶽之一派 亭何象乎叢石之六面	수계취어설악지일맥 정하상호총석자유면	물은 설악산 한 줄기를 어찌하여 취했는가 정자는 총석정 육면을 어떤 모습을 본뒀던가
海上三年意匠構 江頭一日空樓見	해상삼년의장구 강두일일공누견	바닷가에서 3년동안 집 지을 구상 하더니 강 언덕에 하루아침에 빈 누각이 보이네
中排三十有六宮 寬納湖山窓六通	중배삼년유육궁 관납호산창육통	가운데 서른하고 6개의 궁을 배열하고 강과 산을 넉넉히 받아들이려 창을 6개 내었네
源頭之水既盈猶不已 去養前江鱗六六	원두지수기영유불이 거양전강인육육	근원에서 흘러 나온 물이 가득차도 그침이 없으니 앞쪽 강물로 가서 잉어를 키운다네
公之妙理已在屋一區 更何觀理於宴默	공지묘리이재옥일구 경하관리어연묵	공의 오묘한 이치가 담긴 집이 한 구역을 이루고 다시 편안히 거처하면서 또 어찌 이치를 살피시는가
噫 公雖不要好官做 又宜此中思爛熟	아 공수불요호관고 우의차중사난숙	아~ 공은 비록 벼슬살이 좋아하지 않았으니 또 이 가운데서 심사숙고하고 계시누나

1716년 송성명(宋成明)은 안변부사로 나갔다가 1718년 파직되어 돌아왔는데 이즈음 해취정(奚取亭)을 만든 듯하다. 해취정은 기둥을 여섯 박은 육각의 정자로 36칸이나 되는 웅장한 건물이었다. '어찌하여 취하였는가(奚取)'라는 이름은 『맹자』에 보인다. 제(齊)의 경공(景公)이 사냥할 때 우인(虞人)을 깃발로 부르자 우인이 오지 않은 것을 두고 공자가 칭찬하였는데 이를 두고 맹자는 "공자는 어찌하여 그를 취하였는가? 자기의 신분에 맞는 부름이 아니면 가지 않은 것을 취하신 것이다"라 하였다. 송성명(宋成明)이 해취정(奚取亭)이라 이름 붙여 함부로 출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방한 것이다.

조태억은 「송정명의 만시(宋留守子和正明晩)」에서 송성명(宋成明)이 형 송정명(宋正明)과 함께 양친을 받들고 산 것처럼 말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종성(梧川 李宗城, 1692~1759)이 지은 신도비명에 따르면, 송성명은 젊은 시절부터 그 의 형 송정명과 함께 광나루 별서에서 은거하기로 약속하고 그 집의 이름을 청송당이라 편액까지 붙인 바 있었다. 그러나 1718년 송정명이 세상을 떠나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는데, 1725년 모친상을 당하자 광나루에서 시묘살이 하면서 옛 집을 수리하여 머물렀다고 한다. 이를 보면 성성명이 당쟁이 격심한 시절 벼슬살이를 하느라 한가하게 물러나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다가 1725년 무렵이 되어서야 광나루로 물러났고 1727년 다시 대사성으로 조정에 복귀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시기 송성명(宋成明)이 머물던 곳은 송석헌(松石軒) 혹은 송석정(松石亭)이라고도 하는 집이었다. 그리고 송석(松石)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 살림살이가 무척 빈한하여 직접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지만, 강호의 삶을 좋아하여 광나루 별서에 머물면서 조경명(歸樂 趙景命, 1674~1726)과 동기처럼 지냈다. 송성명이 송석헌을 세운 것은 조경명이 세상을 떠난 1726년 직후의 일인 듯하다. 조경명의 아우 조현명(歸鹿 趙顯命, 1691~1752)은 「寄題宋君集成明廣津松石軒」를 지었다.

寄題宋君集成明廣津松石軒(광나루 송석헌에 시를 지어 보내다) / 조현명(趙顯命) 『귀록집(歸鹿集)』 권1

吾兄皎皎出塵氛 於此平分一水濱	오형교교출진분 어차평분일수분	우리 형님 깨끗하게 세상 티끌에서 벗어나 이곳 강가 한 구비를 차지하였지
相與欵眠松下石 頻來坐看岫頭雲	상여기면송하석 빈내좌간수두운	함께 소나무 아래 바위에 기대어 주무셨고 봉우리 위로 뜨는 구름을 자주 앉아서 보셨지
百年林壑今無主 千古峨洋孰聽君	백년임학금무주 천고아양숙청군	백 년 세월 숲과 골짜기 이제 주인이 사라졌으니 천고 지기의 말씀은 누가 당신께 들려주랴?
吾欲從君說懷抱 江湖春鴈不堪聞	오욕종군설회포 강호춘안불감문	그대와 함께 회포를 나누고자 하는데 강호의 봄 기러기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

송성명(宋成明)이 동갑의 벗 조경명(趙景命)과 도호(陶湖)를 함께 누렸는데 조현명의 형 조경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조현명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소나무아래 바위에 기대어 잔 것은 송성명의 집 송석헌을 옆두에 둔 것이고 봉우리 위로 뜨는 구름은 조경명의 수운루(岫雲樓)를 지칭한 것이다. 조현명은 「和寄陶湖松石宋尙書成明詩」에서 “수운루는 배씨의 누각 이름인데 송 대감의 송석정과 이웃해 있다(岫雲伯氏樓名與宋台松石亭爲隣)”고 증언한 바가 있다. 수운루는 인근에 살던 조현명의 형 조경명의 별서 귀락정(歸樂亭)에 따린 누각이다. 송성명이 조경명과 자주 어울린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송성명(宋成明)은 조경명과 더불어 절친한 또 다른 벗을 두었으니 바로 해취정(奚取亭)을 노래한 조유수다. 조유수는 조경명의 당숙이기도 하다. 신도비명 「禮曹判書宋公神道碑銘」에 따르면, 1725년 송성명이 광나루 별서로 물러나자 인근에 살던 여러 벗과 어울려 배를 타고 왕래하였는데 그중 가장 절친한 벗이 조유수였다. 또 홍양호가 지은 조유수의 묘갈명 「后溪趙公墓碣銘並書」에 따르면, 송성명은 인근 응봉 기슭에 살던 조유수의 집으로 작은 배나 노새를 타고 오갔다고 한다. 그래서 조유수의 문집에는 송성명과 주고받은 시가 무척 많았으며 상당수는 송성명의 별서에서 지은 것이기도 하다.

次宋君集成明松石軒韻(송석명의 송석헌 시에 차운하다) 一首 / 조유수(趙裕壽) 『후계집(后溪集)』 권2

峨山南作釣臺蹲 松石之間湖映軒	아산남작조대준 송석지간호영헌	아차사(峨嵯山)정자는 언제 지은 것인가 소나무와바위 사이 정자가 강물에 비치네.
炎遠元遮靑障子 夢涼常枕碧雲根	염원원차청장자 몽양상침벽운근	푸른 휘장 드리웠기에 더위는 멀리 사라졌고 푸른 구름 서린 바위 베고 자니 꿈조차 시원하다.
隣亭春草榮何在 相圃秋花的暫存	인정춘초영하재 상포추화적참존	이웃 정자 봄풀의 무성함은 어디로 갔는가? 재상의 채마밭엔 가을꽃이 잠시 남아 있는데
獨此雙淸差耐久 江泉相守庶無諼	독차쌍청차내구 강고상수서무훤	오직 맑은 두 분께서 우정이 오래가리니 강 언덕 지키면서 서로 잊지 말기를.

조유수(趙裕壽)는 조경명과 송성명이 나란히 정자를 짓고 내구봉(耐久朋)의 우정을 이어간 것을 칭송하였다. 唐의 위현동(魏玄同)과 배염(裴炎)이 우정을 맺고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 사람들이 내구봉이라고 불렀던 고사가 있다. 그리고 봄풀 무성한 이웃 정자는 앞서 본 춘초정(春草亭)을 가리키고 가을꽃 핀 재상의 정자는 송석헌(松石軒)을 가리킨 것이다.

이들의 모임에는 학여울에 광연정(曠然亭)을 짓고 살던 조태억(趙泰億)도 자주 배를 띄워 참석하였다. 저자도 (楸子島)에 살아 호를 저호(楸湖)라 한 김계환(金啓煥, 1669~?), 미사리에 살아 호를 미호(漢湖)라 한 심공(沈共) 괴도 지주 어울려 시회를 기졌다고 조태억(趙泰億)의 「陶谷與楸湖金明仲漢湖沈共甫」에서 알 수 있다. 송성명은 조경명의 아우 조문명(鶴巖 趙文命, 1680~1732), 조현명(趙顯命, 1691~1752) 등과도 절친하였기에 자주 시를 주고 받았다. 이러한 시회의 공간이 바로 송석헌이었다.

송석헌(松石軒)은 후에 이기진(牧谷 李箕鑑, 1687~1755)이 1751년 우거하였기에 이 무렵까지는 건재하였으나, 이후의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다. 송정명과 송성명의 후손 중에 이름난 문인을 배출하지 못하였기에 정자도 허물어지고 정자를 빚내는 글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리라.